

【 입 장 문 】

지난달 24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크숍에서 저녁 회식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신동화 운영위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구리시청 담당 공무원이 봉변당했다는 구리시청공무원노동조합의 성명서에 대하여 이유를 불문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당사자인 신동화의원도 구리시청공무원노동조합의 질타를 겸허히 수용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였으며, 앞으로는 공무원들과의 음주를 자제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구리시의회의는 시민의 대표라는 자리를 더욱 무겁게 인식하고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이와 같은 사례가 또 발생할 경우 구리시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경중에 따라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끝으로 구리시의회의는 구리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 구리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5. 2.

구 리 시 의 회